



“도민의 하루·일하는 방식 바꾸겠다”

이원택 지사, 민선9기
도정운영방향 발표

도민 주권·체감성장
전북 몫 찾기 본격화
도청 개방 등 열린행정
민생·기업지원 방식 전환
재생에너지·퍼지컬AI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추진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하루를 바꾸고 일하는 방식도 바꾸겠다”며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과 취임 100일 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임의 기쁨보다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생각한다”며 “선거 기간 14개 시군을 돌며 들었던 전북도민들은 달라져야 한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4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어 “139개 도정 과제 가운데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과제 10개와 1년 안에 변화를 체감할 우선과제 10개를 선정했다”며 “오늘은 그중 앞으로 100일 안에 시작할 일들을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장은 통계가 아니라 사람이고, 숫자가 아니라 생활”이라며 도민 생활 속 변화를 중심으로 한 행정 혁신을 강조했다.

첫 번째 변화로 도청 문턱을 낮추는 ‘열린 행정’을 제시했다. 그는 “도청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은 도민의 건물”이라며 “앞으로 평일 근무시간 동안 청사 문을 열고 도민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청 1층에 ‘오픈도어’를 마련해 매일 도지사 직접 도민과 민원인의 목소리를 듣고 처리 결과까지 공개하는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 운영 방식도 바꾼다. 취임 후 첫 결재로 회의 공개를 결정한 이 지사는 “간부회의를 준비가 되는 대로 생중계하고, 실적을 낭독하는 회의에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원택 도지사가 민선9기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 벗어나 의견이 오가는 회의로 바꾸겠다”며 “행정의 어려운 말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듬겠다”고 말했다.

도민과 전문가가 성장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체감성장위원회’도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한다. 이 지사는 “무엇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도민이 보고,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도민주권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민생과 기업 지원 방식도 전환한다. 창업과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부터 지원 연결, 전문가 조언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그는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동 지원반이 직접 찾아가겠다”며 “기업 지원도 필요한 것을 먼저 진단한 뒤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골목의 작은 가게가 지역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기업이 만든 가치가 다시 전북에 투자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전북성장 선도기관’ 설립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소득 창출 구상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전북의 들녘과 바다에는 햇빛과 바람이라는 자원이 있다”며 “그동안 발전소가 들어서도 이익은 지역 밖으로 나갔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참여하고 발전 수익이 주민 소득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유치에도 나선다. 그는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 위에 로봇·수소·인공지능 산업을 올리겠다”며 “퍼지컬AI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전북의 농생명·기계산업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농업은 전북의 미래”라며 농정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가 직접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간 전담기구를 통해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의 국가적 역할 확대와 균형발전 대응 전략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정부의 5국 3특 구상 과정에서 전북이 뒤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도민들의 걱정을 지도 함께하고 있

다”며 “전북과 강원, 제주가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에 전북의 몫을 당당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성장엔진으로는 그린수소, 첨단로봇, 농생명바이오를 제시했다. 수소와 바이오 분야는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을 구체화하고 추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세 시군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규약 제정에 착수하겠다”며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공공기관 유치, 208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앞으로의 100일은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도민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방향을 분명히 하고 첫걸음을 떼는 시간”이라며 “명분보다 실리를 보여주기로 결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는 함께 나누고 책임은 제가 먼저 지겠다”며 “전북은 늦지 않았다.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정청래 전 대표, 당대표 연임 공식화

“오직 민심·당심만 믿겠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17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는 당원 중심·당원 주권 정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며 “중단 없는 개혁, 전광석화 같은 숙전숙결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출마 명분으로 ‘개혁과 민생’을 제시했다. 그는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라며 “개혁을 멈추면 자전거가 쓰러지는 것처럼 민주당은 개혁의 폐달과 민생의 폐달을 함께 힘차게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정권 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정 의원은 당대표직을 대권 도전의 발판으로 삼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다”며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고,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대표 재임 기간의 성과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11개월 동안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내란 청산 검찰개

개혁·민생이 출마 명분

李정부 성공·정권 재창출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당대표직을 대권 도전의

발판으로 삼지 않겠다”

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당원 주권 정당 개혁을 위해 불철주야 일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청 폐지라는 약속을 지켰고,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보완수단 전면 폐지도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제를 성공시켰다”며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합당 제안은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고 전당원투표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며 “당대표가 되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여부를 전당원투표로 묻고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당대회까지 깨끗한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공약으로는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지원 △한반도 평화정책 강화 △범민주진보 진영 통합과 연대 △민중당 내부 대통합 △당원주권 시스템 강화 △당원 알권리 확대 △사이버 내란청산 추진 △보훈·호남 발전 특별위원회 지속 △지방자치 강화 △원의 지역위원장 지원 등 10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총선 승리를 위한 공천 시스템과 관련해 “계파 보스에게 줄 서지 않아도 되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민주 경선을 만들겠다”며 “호남은 개혁 공천을 통해 신진 인사의 등용문을 넓히고 민심이 확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선 인재 영입은 외부 인사 50%, 내부 발탁 50%로 하고 남녀 비율도 5대5로 하겠다”며 청년층 정치 참여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민주당다운 때 가장 강하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시대 요구에 응답하는 개혁, 정부와 당이 함께하는 책임 정치로 더 큰 신뢰를 쌓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다 이로 운 익 산 여 행

원불교 중앙총부
미륵사지
두동교회
나바위성당

성지혜움길 <4대종교 문화체험>

